

제5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6. 2. 26(금) 14:0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김신원, 김 연, 김연진, 박민정, 이성옥
이종건, 이혜경, 임상빈, 조유진, 황인철
- ◆ 안 건 : 미술작품 3건 7작품(조각 7)
[신규 5작품, 재심 2작품]
- ◆ 결 과 : 승인 6작품, 부결 1작품
- ◆ 회의록 확인 : (서명), (서명)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금일 심의위원회 총 11명 중 10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5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회의 내용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취되며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시민에게 공개 예정입니다. 본 회의 종료 후 참석 위원 중 2명에게 회의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에 따라 서울시의 주관부서에서 확인서명 요청이 있을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심의 안내에 따라 사전토론을 먼저 한 다음 개별 채점하는 방법이 있고 개별 채점을 먼저하고 토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그럼 의견에 따라 토론 후 개별채점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 내부 공간의 색이 무지개 색을 너무 1/n식으로 골고루 사용된 것 같습니다. 조형적으로 재미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닌데 이런 식의 색 조합이 좀 아쉽습니다.
- 조명이 6500K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5500정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지난 번 심의 시 나왔던 부결된 작품이 다시 나왔네요. 사과형태도 등장하는 이유가 없는데 등장한 것에 대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작품도 비상이라는 제목과 형태가 맞는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 재심의로 들어왔는데 그럼 전 작품보다는 훨씬 정리는 된 것 같습니까?
- 지난번보다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옆에 있는 의자가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서 여름에 가열된 상태에서 사람이 앉았을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이라는 형태는 아래는 좁고 위는 넓어지는 날개 형태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같은 컨셉으로 아래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첫 번째는 색을 너무 골고루 썼다는 말씀이시죠?
- 색을 너무 골고루 써서 너무 정적입니다. 비상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동적인 형태라든지 그라데이션을 준다든지 파편의 변화도 리드미컬하게 나와야 동적인 이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스톤의 높이가 약간 높은 것 같다. 조형적으로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앉게 되면 종아리가 닿게 되면서 불편할 것 같다. 하부에 여유있는 깊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부에 잔디가 식재가 되는데 잔

디가 생육할 수 있는 깊이가 되어야 하는데 10cm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잔디가 생육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유있는 깊이를 가진 섹션 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작품이 너무 좁고 뻣뻣하다는 느낌이 들어 조형적으로 아쉽습니다. 공공미술이 인간과 환경을 고려한 작품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들어선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 공간에 이대로 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채점에 반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작가들이 심의에서 떨어지면 보완사항에 맞춰서 수정이 되다 보니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마곡지구에 설치되는 데 이 곳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공개공지에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데 마곡 지구는 공개공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실제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또 금액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조형적으로 저도 좀 아쉽습니다. 작품명이 비상인데 비수가 박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올라가는 상향 느낌보다는 쫓아 내리는 느낌이라 이설명이 작품에 맞나 싶기도 합니다.
- 비상이라는 제목과 향아리형태의 의자가 너무 동떨어져있어 무슨 상관인지 궁금합니다.
- 조각가가 나름대로 자신의 컨셉을 가지고 구상하여 만들었을 텐데 이 주 조형물의 모습은 약간의 곡면을 취하긴 했지만 좀 더 확실하게 스파이럴 패턴식으로 표현하여 비상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발목을 잡는 게 밑에 고리가 있어서 비상하는 모습이 더 보이지 않습니다.
- 그건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 듯 합니다.
- 스테인리스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도서상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번째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좀 위험해 보입니다.
- 끝부분이 너무 뽕족하다는 느낌입니다.
- 전의 심의 때 그때 기억으로는 열전도율이 높아서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것과 아이들이 올라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태가 달라진거지 그런 위험 요소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이 달라졌지만 부결사유는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 더 위험해진 것 같습니다. 작품이 부결이 되었을 때 다시 심의에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나요?
-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 재심의로 접수하려고 미리 준비해 둔 작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작품을 재 접수하는 기한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 그런 건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제안할 때 하나의 경우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작품을 구상해 보게 되고 여러 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작품이 심의에 올라와서 부결될 경우 차선작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있어서 개인의 편차인 부분임으로 기한에 제한을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전성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으니 일단 채점을 하시면서 만일 통과가 된다면 그때 보완사항으로 제시하면 될 듯합니다.
- 조형도 보다는 위험성 때문에 부결된 것 아닌가요? 위험도가 문제라면 위험하지 않은 작품들을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 첫 번째는 위험성 때문에 두 번째는 전체적인 작품의 비례나 큰 변화가 없어서 부결되었습니다.

- 2미터 정도의 작품 높이에 비해 표지석이 110cm로 너무 높아 작품을 가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 표지석은 낮춰도 되겠네요.
 - 승인이 되었을 경우 조치사항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2롯데월드 미술작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24페이지 도면을 보면 얼굴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을 재밌게 표현했다.
 - 모형은 제작과정상 틀로만 쓴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하우메 플렌자라고 얼굴이 없는 게 작품의 컨셉입니다.
 - 이 작품은 냉정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인작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의미성도 크고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부분에서 27억 정도로 규모가 상당합니다.
- 임상빈 : 형태도 좀 의문스러운 것 같습니다. 상체랑 하체가 따로따로 논다. 형태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웬지 깨진 달걀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형태자체가 애매한 것 같고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 한국에 세워지는 어찌보면 세계적인 건축물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메인 작품이 외국작품으로 놓아져야 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술작품 1%법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넘어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꼭 외국작가로 해야 하는 건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여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위원장님은 중립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은 자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 가격이 걱정하기는 합니까?
- 작품은 워낙 유명한 작가이니까 이런 작품들이 한국에 와 있는 것도 지금같은 시대에선 거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에 면에서는 한국작가와 외국작가와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아쉬움이 듭니다.
- 비슷한 조각품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해서 롯데에 설치되게 되는데 이게 환경조형물인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오브제로서 전시되는 작품이 아닌 외부에 설치되는 조형물인데 이게 적절한 건지도 의문입니다.
- 지금은 환경조형물로 안보고 순수한 미술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수한 창작품으로 쓰는 것을 지양하는 편입니다.
- 그렇다 해도 도시적 맥락에서 이렇게 비싼 환경조형물이 복제품처럼 여기저기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 보통은 똑같은 것도 7~8개 까지는 로댕 작품 같은 것도 오리지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설치되어도 그 환경에 어울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인체 같은 경우에 여기 서 있다고 해서 어울리지 않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작품이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때 우리가 조정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을 품는 형태로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작가로서 흔히 독창성 등을 얘기하게 되는데 좀 거창하지만 작가의 윤리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 범주 내에서 유사복제품을 여기저기 만든다, 그것도 27억을 받는다는 것이 초기에 만드는 작품은 인정이 가능하지만 자꾸만 거듭되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그런데 틀을 만약 그대로 썼다면 얘기가 되는데, 저도 가격내역을

봤을 때 원형제작비가 보통 웬만한 큰 작품을 만드는 비용보다도 몇 배는 많이 책정이 되어있던데 그런 것은 좀 불합리 면이 있습니다.

- 크기가 다 다릅니다. 전에 사용했던 틀을 다시 쓸 수는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동일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없는 또 한글을 사용해서 만든 것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해외 작가들의 가격적인 면을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 사실 해외 작가의 경우 가격적인 면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작가의 경우에는 많이 더 받기도 어렵고 덜 받기도 어렵습니다.
- 27억이라는 작품가격에 비해 좌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에 작품베이스에 현무암 재질의 스톤타일을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3페이지 규격이 나온 부분에 타일의 크기가 7~8m정도 되는데 실제 이정도 크기의 타일형태로 만들 수 있는 현무암이 있는지, 분명히 조각조각 일텐데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옷만 잘 입고 신발을 잘 못 신은 느낌이 듭니다.
- 타일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그냥 석재판인 듯 합니다.
- 가격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네요. 사실 동일한 가격으로 한국조형업체에서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형태는 따라 갈 수 있지만 퀄리티는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작가를 당연히 저는 잘 모르지만 가격적인 면은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형적인 부분도 제가 논할 바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장소에 놓는 게 적정한지의 문제인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식의 논쟁을 하기엔 이미 그런 수준이 넘은 작가인 것 같습니다.
- 전체 금액이 27억 정도이지만 작가창작비는 5억입니다. 전체는 금액이 크지만 세부내역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가

지는 상징성은 롯데든 현대든 삼성이든 누구의 건물이라기 보다는 그 건물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서 자리 잡는다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설치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곳에 맞는 작품을 보다보니 이 작품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시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작품에 대한 많이 고민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브랜드화 되어있기 때문에 예술성 같은 것으로 논할 수는 없고, 심의위원 한도 내에서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작가만 고집하기엔 너무나 오픈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이 설치됨으로써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세계적인 건물에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 서는 것도 저는 찬성하고 싶습니다.
- 저도 이 작가의 작품이 서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디어 부분에서 지속되는 작가의 브랜드도 중요하고 작가의 아우라가 놓임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작가라도 좋은 작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이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작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깨진 달걀이 생각이 나네요.
- 이 작가를 처음부터 한건 아니고 공고를 하고 1차, 2차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고, 뒤에 4작품이 있으니 롯데가 하고자하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명작가라고 해도 작품마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 한가지 궁금한 것은 작가가 이 작품을 제안했을 때 이것 말고 몇가지 더 제안 한 것들이 있는지, 몇 개의 이미지를 제안해서 이 작품이 선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 작품이 작가의 대표작 맞습니다. 규모도 자국외의 국가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다음 작품도 보겠습니다. 3-2번 작품 확인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 재미있는데 배경 밀도가 너무 균일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너무 사람과 배경이 너무 깔끔하게 나뉘져 있고 조금 더 애매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위쪽의 밀도가 높고 그라데이션을 주던지, 아니면 조금 퍼지져서 사람과 물결이 혼합된 느낌을 주던지 하면 좋을 건데 사람이 너무 눌린 느낌이 듭니다.
- 사람이 유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한가지 만 더 의견을 주자면 조명이 고정되어있는 것 보다는 약간 움직여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조명의 연출에 의해 유리작품이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 조금 더 다양한 연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 이렇게 재밌는 작품 연출하기 힘든데 신선하고 좋네요.
-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 평가를 해주시고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품보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재밌는 작품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 규격이 나와 있는 페이지에 보면 기단부가 케익모양으로 2중 기단으로 되어 있는데 원경쪽 그림을 보면 식물이 하단부를 둘러싸고 식재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분명 지피초화류가 식재가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을 봤을 때 식물이 없이 조형물 자체만 가지고는 미완성인 느낌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식물이 식재가 되어서 파운데이션부분을 가려줘야 완성된 작품이 될 텐데 설치금액 사용내역서 상에 식재수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100%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재를 필히 해야 함으로 발주처에서 조각가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나무의 품종을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겨울에 앙상한 가지

만 있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눈주먹이나 눈향나무 이런 걸로 뻣뻣하게 사시사철 표현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합니다. 장미꽃을 연상시키는 거 같은데 하단부랑 조형적으로 조화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품의 설치비용에는 이런 2중 기단 설치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는데 실제 식물을 식재할 경우 하단부가 가려져서 안보입니다. 의미가 없는 구조체에 돈이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저도 기단이 안 보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 기단에 비해서 작품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작품을 조금 더 키우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도서 상에는 확대가 되어있어서 반사되는 모양이 커 보이는데 실제 설치되었을 경우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좀 더 면적이 커지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런 방법도 있고 기단부의 높이가 60와 70 인데 식물의 종류 중 황금사철이나 금태사철 쪽으로 식재를 하게 되면 녹색과 옐로우가 들어가서 위의 붉은 색 작품과 조화를 이루면서 화사한 경관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 건축물과의 조화 75페이지를 보면 필로티 높이가 높은 것 같은데 작품을 키워 필로티 높이 위로 올라오던지 아예 작던지 하면 괜찮은데 필로티에 딱 걸리는 높이여서 차라리 크기를 크게 조정해서 설치하면 좋을 듯합니다.
- 저도 좀 더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막연히 키우라하면 안되니까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5m정도 이상 되어야 할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30%정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 피보나치수열을 황금비율로 재연했다는데 관객들이 원리를 알 수 있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마디 부연한다면 피보나츠 수열의 작품명이 Light Forest인데 그림 Forest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이 갖는 개별성, 독특성, 유익성 등을 고려하면 작품이 너무 획일적인 것 같습니다. 노란색의 구체나 스테인리스의 봉이 너무 획일적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좀 더 차별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가 크고 작고 굵고 이런 식으로 변화 있으면 합니다.
- 이 작품은 제출된 별도의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 그림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대충 짐작이 가는 작가가 있긴 한데 예상하신 분이 맞다면 주로 같은 모듈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 작가의 특징일 것입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봉의 맨 윗부분 잘라진 부분이 보는 관점 나름인데 웬지 미완성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 저는 명판에 피보나치수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 작품명판을 좀 더 친절하게 보면 지식도 생기게 좀 길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 평가해주시죠. 다하신 분들은 마지막 작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작품이 글로쉬한 작품인데 머쉬멜로우 재질을 따라간다면 먹고 싶은 재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매트한 느낌의 재질로 갈수는 없나 싶습니다. 스테인리스에 도장은 머쉬멜로우의 느낌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저는 이 작품의 재료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상의 전경을 보면 넓은 잔디밭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인데 스테인리스의 경우 우레탄 도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 앉았을 때 뜨겁고 밟았을 때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기고 스크래치도 생깁니다. 안전의 문제나 보존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화강석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오브제 같은 경우 하중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경우 안을 파서 중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화강석의 마감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반짝거리는 효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작품의 효과를 살리면서 안전성이나 보존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가 수용을 한다면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작품들의 전반적인 재료가 스틸이기 때문에 재료의 다양성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따뜻하고 맛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 경관상의 앉는 구조를 보면 편하게 앉아있을 구조가 아닙니다. 웬지 작가가 앉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듯합니다. 그리고 표면처리나 광택 등으로 보면 이게 과연 이 작품금액을 들어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작품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캐릭터 작품도 하나의 추세고 인지도도 있는 작가이니 작품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 브론즈나 다른 재료에 비해 스테인리스가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재료부분은 저도 생각해봤는데 이 작가의 작품은 늘 스테인리스에 도장처리를 하고 있는데 작품의 재질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있는 범주는 있는 것 같다.
- 가격적인 면은 점수로 나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작가가 수용을 한다면 재질을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권고사항으로 제안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저도 작가의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다 듣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고려사항을 될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은 앓은 작품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크리티크를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조형어법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 사실 제작비는 돌이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물을 뜨거나 해서 작품을 제작할 건데 기성작품을 쓰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 롯데의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이 3-5번 작품이 설치되는 곳이 아이들이 많이 다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3-1~4번 작품과 이 작품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과연 아이들이 왕래해서 이런 작품이 설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넓은 공간에 작품을 펼쳐놓고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 롯데 미술작품 설치 건으로 사업이 주어졌을 때는 이미 이런 컨셉으로 해라라는 기초 안이 있었을 겁니다. 앓기 편한 기능적인 것만 하면 그것은 그냥 벤치조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봐주시고 자연스럽게 편한 부분은 앓고 불편한 부분은 앓지 않게 되겠지 앓게 하기 위해서 형태를 인체공학적인 것에 맞추면 작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할 부분일 듯합니다.
- 그리고 형태가 너무 파묻혀 있는데 저희는 이미지 상으로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해하기엔 너무 두리몽실하고 구름같은 이미지가 강하여 작품을 조금 더 위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살짝 얼굴모양이 보이는 정도도 좋을 듯합니다.
-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네요. 각자 채점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

<위원장>

- 오늘 심의 결과 1번 작품은 부결되고 3-1번과 3-2번, 3-5번이 권장사항이 부기된 상태로 승인되고 2번, 3-3번, 3-4번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6년 제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